

## 족관절 자기공명영상에서 전거비인대 평면상의 유용성

### Effectiveness of the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Axial View in Ankle MRI

국군함평병원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김진수 · 문용주\* · 전준모 · 천호준

#### ❖ 서론

족관절 수상이후 불안정성 및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외측 족관절 인대 및 내측 족관절 인대 손상의 판정을 위해, 일반 평면상(Routine axial view)과 전거비인대의 주행과 동일한 축으로 평면상을 구성(Oblique axial view, ATF view)한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하고, 후자인 ATF view가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 대상 및 방법

본원을 방문한 남자 군장병중 족관절 염좌 등의 외상이후, 이학적 검사상 통증 및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115개의 족관절 1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족관절 MRI 촬영 시, 시상축상에서 주상골, 거골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전거비인대의 주행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족관절과 거골하 관절을 포함하는 평면상 자기공명영상을 추가로 촬영하였다. 전거비인대와 내측 경골주상골인대의 손상여부를 손상없음, 파열은 없으나 인대의 변화 있음, 부분 파열, 완전파열, 판정할 수 없음 등으로 나누었고, 전거비인대는 완전한 전체길이가 한 단면에 전체 길이 모두 확인되는지를, 내측 경골주상골인대는 75% 이상 확인되어 진단에 무리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상기 인대의 문제 이외의 병명을 진단한 경우에는 일반 평면상과 ATF view 중 어떤 상에서 더욱 진단이 용이한지 판단하였다.

#### ❖ 결과

전거비인대의 일반 평면상에서는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24예(20.9%)였으나, ATF view에서는 판독할 수 없는 경우는 없었으며, 손상여부가 일반 평면상에서 보다 ATF view에서 정도가 증가한 경우가 26예(28.6%)였다. 완전한 전체길이가 보이는 경우는 평면상에서는 85예(73.9%), ATF view에서는 112예(97.4%)였다. 내측 경골주상골인대 손상여부는 일반 평면상에서는 21예(18.3%)에서만 관찰이 가능하였으나, ATF view에서는 114예(99.1%)에서 관찰이 가능하였으며, 손상정도를 구분할 수 있었다. 75%이상 길이가 보이는 경우는 일반 평면상에서는 3예가 관찰되었으나, ATF view에서는 98예(85.2%)였다. 중요 타질환을 진단한 건수는 총 64건이었으며, 이중 전하방경비인대 손상, 후하방경비인대손상, 후경골건염 등의 진단에서는 일반 평면상이 진단에 용의하였다.

일반연제

❖ 결론

ATF view는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전거비 인대, 경골주상골 인대 등의 주요한 구조물의 손상 여부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거나, 일반 평면상을 생략할 수는 없다.

---

색인단어 | 전거비 인대, 경골주상골 인대, MRI